투데이 칼럼

인생이 별건가, 하루 세끼 밥 먹으면 됐지

신 영 규
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 회장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오후, 전주 효자동의 한 도로 위를 검은색 외제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지나간다. 같은 순간 외제 차 우측으로 박스를 가득 실은 인력거가 비틀거리며 지나간다. 노인은 끌고 가던 인력거를 잠시 멈추더니 박스가 떨어지지 않도록 밧줄을 조인다. 노인의 깊게 파인 이마의 주름 사이로 굵은 땀방울이 고여있다.

그는 다시 인력거를 끌지만, 얼굴은 똥을 씹는 표정이다. 바람 한 줄기에도 흔들릴 듯한 그의 모습에서 버티는 것조차 고역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저 각자의 리듬으로, 각자의 삶을 짊어진 채 같은 도심을 지나가는 모습을 본 대로 옮긴 것이다.

나는 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마음 한 켠이 씁쓸했다. 과연 잘 살고 못사는 건 누구 책임인가? 사르트르는 인간을 "자신이 선택한 존재"라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잘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결국 외부 탓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든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인생은 누구든 잘살고 싶어 한다. 만약 빈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상이 아니다. 그리고 인간은 늘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를테면 많은 돈을 벌고 싶다, 권력을 누리고 싶다, 또는 명예를 얻고 싶다, 이런 생각에 젖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준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우리를 조용히 옥죈다.

하지만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가는 구름과도 같다.

인간은 기껏해야 백 년 남짓 살아간다. 우주적 시간에서 보면 백 년 그깟 것 쏜살같이 지나간다. 게다가 살아 생존 시 대부분 시행착오, 후회, 어설픔으로 점철된다.

삶에서 행복은 그리 많지 않다. 부정적·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대부분의 삶은 평범하거나 버겁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루 세끼 먹는다. 잘 먹고 산다 한들 거기서 거기다. 어쩌면 우리가 꾸는 '거창한 꿈'도 결국엔 하루 세끼를 편안히 먹고, 평온하게 사는 삶인지도 모른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삶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이다"라고 했다. 인생은 마치 덧없는 꿈같아서, 눈을 뜨면 사라져 버릴 듯한 허무함을 안고 있다.

그러니 너무 심각하게 굴 필요가 없다. 결국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후회하고,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간다. 인생이 뒤처졌다느니, 낙오자라니 하는 생각도 다 착각에 불과하다.

인생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살아보면 또 별거 아니라고 느낄 것이다. "인생이 별거 아니다"라는 말은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해방이 있다. 꼭 대단해야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살아도 좋다는 것이다.

삶은 한순간에 극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느릿하게 서서히 소멸된다. 젊은 날의 열정은 조금씩 무뎌지고 무한할 줄 알았던 시간도 매일 조금씩 줄어든다. 삶은 이 순간에도 사라지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고통의 부재"라고 했다.

그는 행복이라는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단지 고통이 없을 때 느끼는 일시적인 상태로 보았다. 즉, 행복은 적극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물론 인생은 거창한 꿈을 꿀 수도 있고, 그 꿈을 실현할 수도 있다. 거창한 꿈은 반드시 위대한 성취를 뜻하지 않는다. 그건 자신의 한계를 넘어보려는 시도일 수 있고, 혹은 자신의 삶을 살아보려는 용기일 수도 있다. 꿈이 클수록, 그 꿈과 현재의 간격이 커지기 때문에 과거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삶은 어떤 경우든 지나간다. 매일 일하고, 먹고 자고, 어떤 날은 웃고 떠들고, 어떤 날은 울고 그러다 서서히 늙어가다 끝내 소멸한다. 그렇다고 아무렇게 살기엔 인생은 너무 유한하다. 대충 살아도, 치열하게 살아도 언젠간 끝나지만, 그 끝의 과정이 우리를 만든다.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삶을 소유하려 하거나, 집착하는 것은 결국 고통을 낳는다고 했다. 삶은 구름처럼 흘러가며, 생겨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은 결국 '비어 있음(空)'이다.

그렇다. 인생이 뭐 별건가. 하루 세끼 밥 먹고 건강하게 살면 됐지.

사 설

전북특별자치도 사진대전

'제57회 전북특별자치도 사진대전'이 3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전북도민일보 비전창조아카데미(CVO) 10기 원우인 박병철(56) 백제건설 대표가 대상을 차지했다.

박 대표는 100여 년 전 1차 세계대전에 사용했던 수레바퀴를 통해 눈 내리는 겨울날 수리공의 삶의 무게를 표현한 '겨울날'을 출품했다.

그는 "수리공의 고된 삶의 무게를 표현하고자 했지만 결국에 내 인생의 수레바퀴 수리공은 본인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깨닫고 열심히 살자는 의미를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사진'을 대학시절 본과 수업 보조자료로 활용하며 졸업 때까지 줄곧 함께 했다.

하지만 졸업 후 직장생활로 바쁘게 살면서 사진을 멀리하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갱년기가 찾아왔고, 방황하며 새로운 활력소를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사진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이후 이론교육은 물론 사진 인문학 강의를 수강하는 등 열정적으로 사진공부에 매진했다.

현재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사진예술반 강사로 활동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박 대표는 "일상의 탈출구로 선택했던 사진과의 인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져 이제는 개인 스튜디오를 운영해 후배 사진인들을 양성하는 데에도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예술가는 언제나 외발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하며, 잠시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교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사진대전 시상식은 폐막일인 3일 전북예술회관 2층 차오름 1실에서 진행됐다.

노인회 전북취업센터의 내손내정 일자리

대한노인회 전북취업센터가 지구환경지킴이 활동에 본격 나섰다. 이를 위해 공공형 일자리로 '내손내정'을 만들었다. 이 말은 〈LH 전주권 매입임대주택 내 어르신들이 분리작업을 하며 내손으로 정리한다〉는 뜻이다.

내 = LH 영문자를 조합하여 '내-손으로 내-가 정리한다'라는 의미를 지녔다. 재활용품은 우유팩, 아이스팩, 폐건전지, 플라스틱 병뚜껑 등이다. 아이스팩은 깨끗한 것만 분류하여 세척 및 건조하면 된다.

우유팩은 세척, 건조, 그리고 펴면 된다. 플라스틱 병뚜껑은 부직포가 내장된 것, 패킹과 고무패킹 등이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 이물질과 곰팡이도 제외시켜야 하며 깨끗하게 세척하고 건조해야 한다.

폐건전지는 수은, 망간, 카드뮴 등 중금속 물질을 포함하기 때문에 유해 폐기물로 구분된다. 실제로 토양과 하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맨손으로 만지지 않기, 장갑 사용하기 등 주의해야 한다.

'내손내정'에서 수집한 4가지(병뚜껑, 아이스팩, 우유팩, 폐건전지 등)은 각 업체에 납품되어 리사이클링 과정이 이뤄진다. 우유팩은 고급 화장지로, 병뚜껑은 깔끔이 치약 짜게 등 제품이 만들어져 소비자에게 전해진다.

우유팩 납품처는 로컬푸드 효자점, 폐건전지 납품처는 전주시청이다. 병뚜껑 납품처는 덕진자활 팔복공장이다. 도내에서 노인회 '내손내정'은 공공형으로 65세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들이 2023년 100명이 참여했다. LH 전주권 매입 임대주택 내 입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2024년 200명으로 증원했다.

기고문

미래를 위한 물과의 전쟁

서 기 태
용담호 수질개선 진안군 주민협 사무국장

"물이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몸에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지 느끼고 있는가?"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정과 사무실, 사업장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불편함을 거의 못 느끼고 사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 중 하나이고,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가중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물 부족현상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장담할 수 있으며 현재, 국제적으로 국가 간, 국내적으로는 지역 간에 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메콩강 상류에 중국이 댐을 10개 이상 건설하여 물을 가두어 사용하는 관계로 유수량이 급감하여 하류지역 국가 중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5개국이 물 부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용담댐의 상류지역 무진장 3군과 하류지역 충청도 간에 물을 두고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용담댐이 있는 우리 진안군에서는 "용담호 수질개선 주민협의회" 회원, 170여명의 민간조직을 결성하여 군민 자율적으로 물을 관리, 항상 1급수를 유지함으로써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20년째 유보시키고 있다.

지구의 70%가 물이고, 이 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은 1%도 채 되지 않으며 지구상에 생존하는 미생물에서부터 동식물, 인간들이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자원이 바로 물인 것이다.

따라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깨끗한 물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오염 예방, 하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1급수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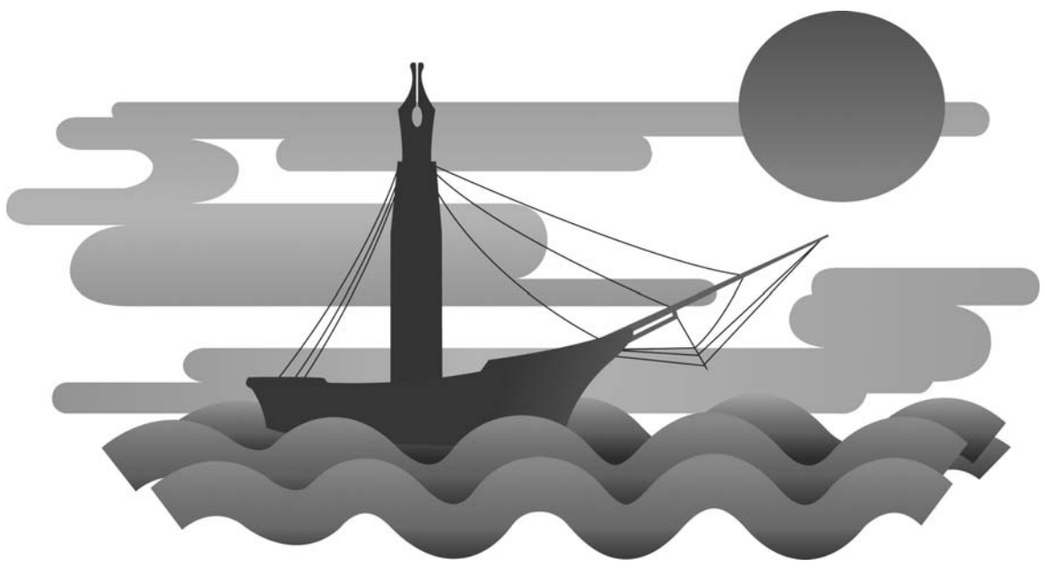
맑은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환경오염 저감시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축산분뇨 수집처리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 주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현실이다.

우리 군민들은 쓰레기를 '안 버리고', '안 묻고', 안태우는 쓰레기 3NO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고, 가정에서는 무공해 친환경 세제 사용 등 맑은 물 유지보존에 부단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1급수 맑은 물을 마심으로서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최고의 식수를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